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사무국

(사)무형문화연구원

주소 : (우)5489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285, 별관 1층 무형문화연구원

전화 : 063-277-4098 팩스 : 063-277-4097 메일 : cics.center@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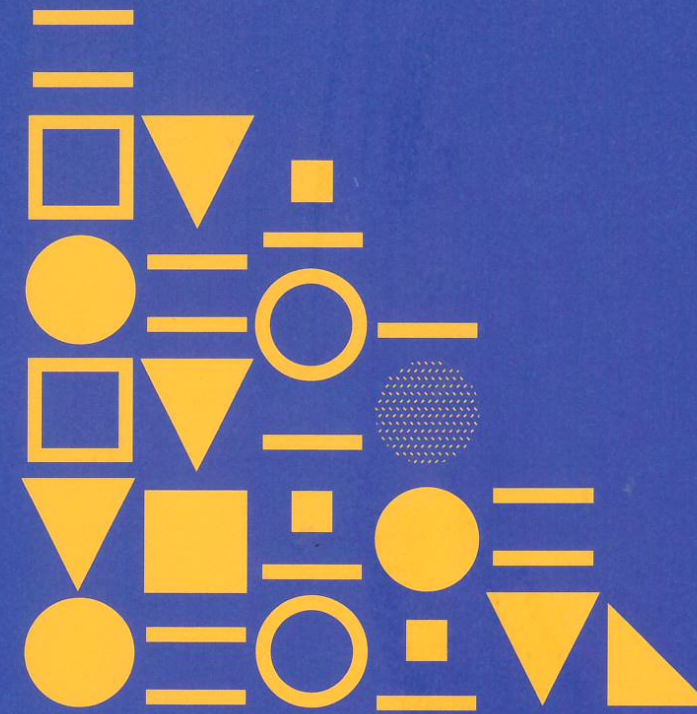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홈페이지 : http://www.cics.center/jiapich_2019_K/

무형문화연구원 홈페이지 : www.cics.center / www.ichpedia.org / www.ichngo.net

전주시청 홈페이지 : www.jeonju.go.kr

2019 Jeonju International Awards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for Promo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9월 27일(금) 10:00 - 16:30

전주한벽문화관

주최  한벽문화관

주관  CICS 무형문화연구원

후원  LINC+ 한국대학교 산업융합 선도대학(2015년 선정)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전북대학교 무형유산정보연구소
Research Center for Intangible Heritage and Information

 梨 薑 酒

 지수 zisu:m gallery
한지포토문화공간

2019 Jeonju International Awards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발굴하고, 무형문화유산을 통한 사회적 결속 및 정체성 확립과 미래의 국제적인 공동체 발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상은 무형문화유산 전승과 보호에 대한 모범을 보여 주고 공동체 활성화에 공헌을 한 개인·단체·지역 공동체·기관·비정부기구(NGO) 등에게 수여됩니다.

전주시는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을 제정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증진에 노력해 온 공로자들을 선정하여 이들의 노고와 불굴의 정신을 치하하고자 합니다.

2019년 첫발을 내디디며 이 뜻 깊은 상이 국제적인 신망을 얻어 권위 있는 상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for Promo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은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가 마련한 국제적인 상입니다. 전 세계 무형문화유산 전승·보호·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인 전주시가 앞장서서 이 뜻 깊은 상을 제정한 것입니다. 전주시는 유독 무형문화유산을 많이 보유한 문화도시로, 도시의 정체성을 오래된 전통에 바탕을 둔 창조성 즉 법고창신에서 찾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신도 같은 맥락입니다.

전주시가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을 제정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 분야에 또 다른 획을 그었습니다. 국가·민족·종교·젠더의 경계를 뛰어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서 헌신해 온 사람들의 공로를 치하하면서 상징성이 큰 상과 상금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방 도시인 전주가 중심이 되어, 지구촌의 화합과 인류문화의 창달, 그리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자처한 것입니다.

전주는 조상들이 남긴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통해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두 주자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저 낡고 낙후된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무형의 유산을 디지털헤리티지로 끌어 올려 스마트시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전주시는 첨단 과학기술시대에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일찌감치 깨닫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올해 첫 발을 디딘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은 전 세계 36개국에서 48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대상후보 지원자들의 지리적 분포도 5대양 6대주에 고르게 퍼져 있어서 지구촌 사람들의 열렬한 호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주시는 이 상을 통해서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전승 활동에 공헌한 많은 분들의 업적을 기리고자 합니다. 망망대해 외로이 항해하던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단체, 관계자들의 희망의 등대가 되고자 합니다.

전주시가 이들의 손을 잡고 희망을 노래하고 전 지구촌 사람들은 큰 소리로 화답할 것입니다.

개회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도시 전주에서 펼쳐지는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방문하신 전주는 오랜 역사와 풍부한 전통을 바탕으로 수많은 무형문화유산이 꽃을 피워온 곳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멋과 맛을 지닌 도시답게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판소리와 한지, 한옥, 한식, 전통공예 등 우리의 옛 것을 잊지 않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데 공헌한 분들을 위해 마련한 상입니다.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키고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개인과 단체, 기관 등을 대상으로 그 노고를 기리고 무형유산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제 공모를 통해 36개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신중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계승·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오늘 행사를 통해 전통문화의 도시, 무형문화유산의 도시 전주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의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지키고 가치를 공유하는데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전주시장 김승수

환영사



‘2019년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시상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전통의 품격과 현대의 멋이 살아 숨 쉬는 도시, 이곳 전주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면을 빌려, 인도 전통예술을 지키는 예술가와 공동체를 지원하고 역량강화 활동을 하고 있는 컨택트 베이스, 캐나다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과 지역 역사 자료 수집 등 활동을 하고 있는 뉴펀들랜드와 라브라도 유산재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협약의 초안 작성에 참여하고 무형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논의를 발전시키는데 공헌한 모로코의 아미드 스킨티 교수님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역사의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조해 온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을 아우르는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보호는 모든 세대의 힘을 모아 이어가야 마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며 미래를 위한 공동체 발전에 헌신해 온 기관과 개인에게 드리는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시상식이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아울러 이번 수상을 위해 36개 국가에서 48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어 뜨거운 호응을 얻었고, 시상식을 통하여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다양한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주시가 세계무형문화유산의 모범적인 보호 활동을 더욱 장려하고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희망하며,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9년 9월
전주시의회의장 박병술

축사



우선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을 수상하신 인도의 컨택트 베이스, 캐나다의 뉴펀들랜드와 라브라도 유산재단, 그리고 모로코 국립 고고학과 유산과학연구소의 아미드 스킨티 교수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유네스코가 제정한 최초의 무형문화유산상인 '아리랑상'을 2001년부터 2005까지 심사하였습니다. 저는 "한국은 1962년부터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되는 상황 속에서 급속히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인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간문화재 제도를 실시하여 사라져가는 많은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아리랑상이 국가, 인종, 종교,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가장 필요로 하는 인간문화재를 위시한 무형문화유산보호에 많은 공헌을 하신 분들에게 수상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아리랑상의 의의를 피력한바 있습니다.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결작 선정제도가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통과되고 2006년 발효됨에 따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상은 더 이상 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리랑상이 더 수여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이 제정되어 기쁜 마음이 그지없었습니다. 전주시에서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입니다. 이번에 무형문화유산보호와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승수 전주시장님과 전주 시민들이 힘을 합쳐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을 제정한 것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은 국가가 아닌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됐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의 근거지는 지역공동체에 있고 국가보다는 각 자치단체가 무형문화유산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과 밀착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무형문화유산의 발전을 위하여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을 제정한다는 것이 국가가 하는 것보다 더욱 가치 있는 일이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의 정신과도 같이 한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이 세계무형문화유산 발전을 위하여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제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영예로운 상이 되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잘 가꾸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9월

대한민국학술원회원/ 전 유네스코 무형유산 아리랑상 심사위원 임동희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상패 헌정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옷칠장 보유자 이의식은 장인정신을 발휘하여 2019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만의 특별한 상패를 제작하였습니다. 상패는 잣나무라고도 불리는 홍송으로 제작하여 몇 대에 전해져도 뒤틀림 없이 온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흙, 돌, 옷 등 자연에서 얻은 색으로 상패를 칠하고, 나전으로 장식하였습니다. 그의 예술혼을 발휘하여 탄생한 상패는 이곳 전주, 그리고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무형문화유산을 밝히는 영롱한 빛으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이의식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3호 옷칠장

약력

1991년	전라북도 전통공예인협회 초대회장 역임
1998년	무형문화재 제13호 옷칠장
1999년	대한민국 신지식인에 선정 전라북도 도지사 표창
2006년	전라북도 자랑스런 전북인 '문화장'수상
2009~2012년	한국전통문화연수원 전통목칠공예 검임교수
2013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목칠공예학과 검임교수

수상경력

1990년~ 대한민국 공예품 경진대회 통상산업부 장관상 수상 외 다수

전시활동

2008년	이의식 건칠전 (헤이리 마을내 리오 갤러리)
2008년	일본 교토문화박물관 이의식 칠예전
2014~2015년	「한국 나전칠기 근현대작가 33인전」 한국나전칠기박물관
2018년	「전통의 숨결 목, 금, 토」 KCDF갤러리(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예의 법고창신 2018〉展/밀라노 트리엔날레 뮤지엄 2층 Cubo C홀

인도 ● **컨택트 베이스**

컨택트 베이스는 인도의 NGO 기관으로, 인도의 전통예술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예술을 지키는 예술가 및 공동체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생활예술(Art for Life)'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0년 유네스코 인가 NGO로 승인받았으며, 2013년 UN의 ECOSOC의 자문활동 및 문화관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UNWTO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 내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활동으로 동인도지역의 30개 이상의 공예단체와 28,000여 전통 무용가를 위한 역량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형문화유산 인벤토리, 기록화, 전승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컨택트 베이스는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1년 유엔여성마스터카드 상, 2014년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비하르혁신포럼II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모로코 타루단트에서 열린 유네스코 ICH 공예 워크숍

컨택트 베이스 수상 소감문

컨택트 베이스(www.banglanatak.com) 일원 모두는 생활예술(Art for Life) 프로젝트로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고 기쁩니다. 전주시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상은 실제로 무형문화유산의 지속 가능성과 생존력 보장을 위해 헌신한 2만 5천여 명의 전통문화 보유자들에게도 영광입니다. 생활예술 프로젝트는 전통문화 보유자의 사회 경제적 권한 강화를 위해 문화적 자본을 소생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술 전승을 강화하며 전통 지식과 문화를 쉽게 접하도록 합니다. 전통문화 보유자의 거주지는 유산 교육 및 창조적 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술가들이 직접 시장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세계화는 새로운 시장과 청중에게 기회를 열어 주어서 젊은이들이 전통을 추구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모범 사례로 생활예술 프로젝트를 인정해주어서 큰 격려를 받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이 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의 견인차이자 필수요소로 문화가 확실히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예술 프로젝트는 문화유산 보호가 농촌 개발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 정체성, 자부심, 대안적인 생계 창출 및 이주의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여성보유자들은 더 많은 이동성과 소득을 누리면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모범 사례를 식별하고 전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을 추진한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평화음악축제 수르자한에서 바울족 공연

캐나다 ● **뉴펀들랜드와 라브라도 유산재단**

뉴펀들랜드와 라브라도 유산재단은 캐나다 동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뉴펀들랜드 섬과 라브라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8년 설립된 이래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지역에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교육 프로그램, 공동체 기반의 워크숍을 통해서 무형문화유산의 개념, 보호를 위한 실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 축제를 기획하여 국제적인 홍보와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자치주정부·중앙정부·유네스코와의 협업을 통해서 캐나다의 변방 지역민의 구술사 수집, 영상면담 제작, 디지털 아카이브 제작 등 지역 역사연구 등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인정받아 매닝상, 캐나다 지방사 활동인중, 캐나다 주지사 역사상 우수공동체프로그램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유네스코로부터 무형문화유산 NGO로 인가받았습니다.



공동체 일원과 대일 자비스

뉴펀들랜드와 라브라도 유산재단 수상 소감문

권위 있는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국제상은 뉴펀들랜드와 라브라도 주, 지역 사회, 전통 보유자, 그리고 뉴펀들랜드와 라브라도 유산재단(HFNL)이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역량강화를 위해 헌신해 온 것을 인정해준 것입니다. 이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며 기쁩니다. 지난 10년 동안, 뉴펀들랜드와 라브라도 유산재단은 우리 지방의 중심부에서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 전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는 전통 유산 공예의 현재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수상이 잃어버릴 위험이 있는 공예품을 기록하고 각 공예품과 그 공예가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전통문화 보유자가 자신의 기술을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그 기술을 다음 세대에 전승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뉴펀들랜드와 라브라도 유산재단의 활동을 인정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며 2019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을 심사해주신 심사위원분들과 전주시에 감사합니다. 재단 이사장님과 이사회를 대표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마운트 펄의 애드머럴티 하우스 박물관에서 구술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

모로코 ● 아미드 스킨티

아미드 스킨티 박사는 모로코대학의 석좌교수이며, 모로코 문화통신부 산하기관인 국립 고고학과유산과학연구소에서 현재 인류학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2003년도 협약 수립 및 2006년도 무형문화유산 협약 이행 초안 작성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전문가회의를 통해 무형문화유산과 교육,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논의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아미드 스킨티 박사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심사위원과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11년부터 유네스코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로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 아랍 지역을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내외 무형문화유산 정책 발전 및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증진에 앞장서는 전문가로서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아미드 스킨티의 모습



2019년 모로코 타루단트에서 열린 유네스코 ICH 공예 워크숍

아미드 스킨티 수상 소감문

‘2019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계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헌신을 아끼지 않는 전주시와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둘째,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심사위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셋째, 공동 수상기관인 인도의 컨택트 베이스와 캐나다의 뉴펀들랜드와 라브라도 유산재단에도 축하드립니다. 수상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영광스럽고 기뻐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을 지역,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보호하겠다는 저의 의지를 적시에 인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이 분야에서 국제적, 국가적 노력의 비약적인 확장을 목격했습니다. 지역 사회, 그룹 및 개인이 점점 더 무형문화유산 시스템에 참여함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미래를 저는 확신합니다. 무형문화유산이 인류가 갈등, 기후 변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같은 주요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차우댄스 Chau Dance

201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차우댄스는 인도무예에서 시작한 가면·곡예·춤·드라마입니다. 차우댄스는 고전 서사시 작품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춤으로 묘사하여 다채롭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차우댄서들은 진흙과 종이공예로 만든 화려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을 쓰고 연행합니다. 서벵골(West Bengal) 프룰리아(Purulia) 차리다(Charida) 마을의 115가구, 약 308명의 공예가가 가면 제작에 참여합니다. 현재 프룰리아에 450개의 차우단체가 있으며, 13,000명의 아티스트들이 민속춤을 추고 있습니다.



비렌 칼린디

민속 예술가, 컨택트 베이스

비렌 칼린디는 춤을 추며 동시에 노래와 연주도 할 수 있는 유능한 차우댄서이자, 나투아춤 예술가(Natua Artist)입니다. 비렌 칼린디는 인도의 전설적인 예술가 하리람 칼린디로부터 차우댄스를 배웠습니다. 2005년부터 차우-나투아춤 단체를 이끌고 있으며, 그가 속한 지역에서 차우댄스 전승조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렌 칼린디는 인도뿐만 아니라 영국, 스위스, 중국, 프랑스, 싱가포르, 독일, 일본, 리투아니아, 방글라데시 등 여러 국가에서 공연하며 차우댄스를 알리고 있습니다.



자가나스 칼린디

민속 예술가, 컨택트 베이스

자가나스 칼린디는 서벵골 프룰리아 지역 출신으로, 차우댄스와 나투아춤 예술가입니다. 자가나스는 형 비렌 칼린디로부터 전수를 받았으며, 전통 퍼커션 악기 연주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현재 자가나스 칼린디는 훌륭한 차우-나투아춤의 댄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독일과 리투아니아에서 공연하여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가야금산조



우리나라 고유의 기악독주곡 가야금 산조

성금연류 가야금산조는 선구적인 기악독주곡으로, 가야금을 연주하는 모든 연주자들이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가야금 산조의 기본이 됩니다. 이는 연주자의 공력과 예술성에 따라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힘차고 경건한 분위기로 시작하는 다스름, 둘째, 친양조 뒷부분에서 다양한 계면조의 표현법, 셋째, 성금연 산조에만 존재하는 감칠맛 나는 굿거리장단 선율의 경쾌함, 넷째, 조의 변화가 뚜렷하고 시작과 끝냄이 분명한 선율이 특징입니다. 지성자 명인은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와 가야금 독주곡 한국의 전통민요 아리랑을 선보입니다.



지성자 명인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0호 가야금산조 보유자, 성금연가락보존회 대표



최만 명인
현재 전남도립대학교 겸임교수, 광양시립국악단 악장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시상식 장소: 한벽공연장	
10:00~10:30	참가자 등록
10:30~10:50	개회사 김승수 전주시장
	환영사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축사 임돈희 대한민국학술원회원, 전 유네스코 무형유산 아리랑상 심사위원
10:50~11:20	축하공연
11:20~11:30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경과보고 함한희 무형문화연구원장
11:30~12:10	시상식 시상: 김승수 전주시장
	수상자 아나냐 바타차라 인도 컨택트 베이스 대표 데일 자비스 캐나다 뉴펀들랜드와 라브라도 유산재단 대표 아미드 스킨티 모로코 국립고고학 유산과학연구소 교수
	점심
12:10~14:00	점심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수상자와 무형유산 전문가 및 무형문화재 보유자와의 대담 장소: 한벽공연장		
14:00~16:10	참석자 로저 자넬리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명예교수 임돈희 대한민국학술원회원, 전 유네스코 무형유산 아리랑상 심사위원 양진성 임실필봉농악 보존회장, 전북무형문화재연합회 회장, 필봉농악 예능보유자 최동환 한-아프리카 협회 회장, 유네스코 NGO 인가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위원 황권주 전주시청 문화관광체육국장	
	16:10	폐회식

야외 부대행사 장소: 한벽문화관 놀이마당	
10:00~16:30	무형유산 전시 관람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인도의 파타치트라 시연 2019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수상팀 전통 부채 합죽선 시연 및 체험 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 선자장 보유자 김동식 강릉단오제 지화 체험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 이수자 신희라 전통 향토 술 이강주 시음회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6호 향토술담그기 전주 이강주 사진, 한지에 담다 특허 제10-1451232호 / 지숨 한지포토문화공간 zisu:m gallery 전주미래유산 사진전 무형문화연구원

인도의 파타치트라 시연

2019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수상팀

파타치트라는 긴 천에 이야기를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서빙갈의 전통입니다. 이를 연행하는 예술가를 파투아스(Patuas)라고 하며, 긴 천을 펼칠 때 파터 간(Pater Gaan)이란 노래를 부릅니다. 전통 민간 신화, 현대 인도 역사나 동시대 이슈 등 다양한 범위의 이야기를 그리며 노래합니다.



수사마 치트라카의 파타치트라 연행 모습

전통 부채 합죽선 시연 및 체험

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 선자장

합죽선(合竹扇)은 한국 전통부채의 한 종류로서, 대나무의 껍대를 얇게 깎아 서로 합하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전주에서 만들어진 합죽선은 한국 최고의 것이라 여겨져 전주를 대표하는 전통 수공예품으로 손꼽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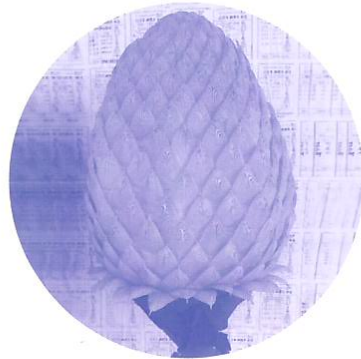


김동식 선자장

강릉단오제 지화 체험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

지화는 강릉단오굿이 진행되는 장소인 단오굿당을 치장하는 꽃입니다. 종이로 만들어진 꽃이라고 하여 지화라고 부릅니다. 신이 인간세상으로 내려와 지화에 좌정한다고 믿습니다. 지화가 놓임으로 굿당이 신성한 곳을 말해줍니다. 지화가 놓여있는 공간은 절대적 신성공간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삶의 희망을 담아내는 공간입니다.



광화

전통 향토 술 이강주 시음회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6호 향토술담그기

이강주(중요무형문화재 제6호)는 조선시대의 3대 명주 중 하나로, 발효학을 전공한 조정형 명인이 집안대대로 가양주로 전승돼 오던 이강주 비법을 계승·발전하여 1991년에 대중화 한 전통민속주입니다. 전통소주에 배와 생강이 들어갔다 해서 이강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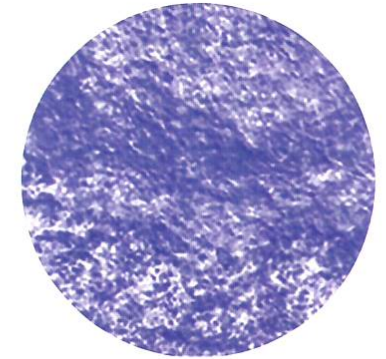


조정형 명인 전통식품 명인 제 9호

사진, 한지에 담다

특허 제10-1451232호 한지포토문화공간 지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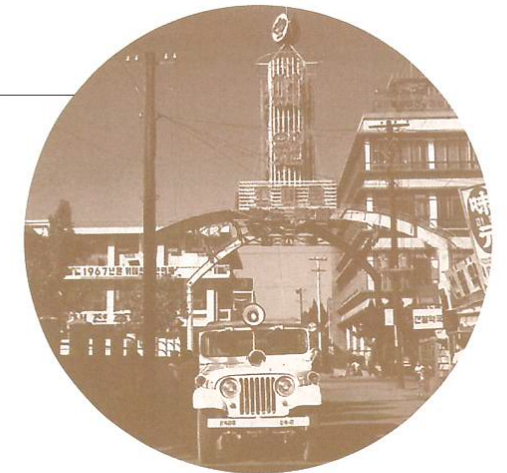
한지포토문화공간 지숨의 한지사진작가 황용운 대표는 4년간의 오랜 연구 끝에 세계 최초로 어떠한 첨가물도 섞지 않고, 전통한지에 사진을 담아내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숨 쉬는 종이 한지에 담긴 사진들은 풍부한 색감을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질감과 우아한 색감을 머금고 있으며, 한국적 정서를 완벽하게 나타냅니다.



지숨의 한지 인쇄 사진

전주미래유산 사진전

전주미래유산은 전주 시민 다수가 체험하고 기억하고 있는 공간, 사건, 인물, 경관, 의식 등 미래세대에 남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지정해서 사라져가는 근현대의 기억과 유산을 지키고자하는 문화운동입니다. 현재 41종목의 미래유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주미래유산 09 미원탑터